

# 칠레 정부, 광업 로열티 법안 조정 가능성 시사...세율 인하 고려

칠레 Mining Weekly, BNamericas, Mining Technology 2023/04/18



## □ 광업 업계가 칠레 정부가 발표한 새 광업 로열티 법안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음.

- 최근 칠레 정부가 광업 로열티 법 개정안을 공개했음. 새 법안은 프로젝트 초기 투자 비용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, 총 세금을 영업이익의 50% 이하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칠레 정부가 광업 업계의 불만을 수용하여 개정된 로열티 법안을 발표했지만, 광업 업계는 새로 제시한 법안도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했음.
- 세르히오 에르난데스(Sergio Hernández) 칠레 광업장비공급자협회(Aprimin, Asociación de Proveedores Industriales de la Minería) 회장은 과도한 세금이 신규 투자를 저해할 것이며, 그로 인해 광업 장비 산업도 둔화되는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## □ 칠레 정부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, 세율 등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.

- 광업 업계가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자, 마리오 마르셀(Mario Marcel) 칠레 재무부(Ministerio de Hacienda) 장관은 광업 로열티 법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업계와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.
- 마르셀 장관은 블룸버그(Bloomberg)와의 인터뷰에서 광업 로열티 법과 관련하여 '완전히 정해진 바는 없다'고 운을 뗀 후, 다만 광업 로열티 법 개정이 이번 정부의 개혁 기초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.
- 마르셀 장관은 광업 부문에서 거둔 세금을 사회 복지 확대와 칠레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 격차 해소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, 이러한 틀 안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.

## □ 칠레 광업부는 2023년 칠레의 구리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했음.

- 광업 업체에 대한 증세가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, 칠레 광업에너지부(Ministerio de Minería y Energía)는 2023년에 칠레의 핵심 수출 광물인 구리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음.
- 마르셀라 에르난도(Marcela Hernando) 광업부 장관은 2022년 구리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물류 병목 현상 등 일시적인 외부 변수 때문으로,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에 칠레의 구리 생산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함.